

치 사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교음악인 모두의 무대 ‘2009 불교합창페스티벌’이 뜨거운 열기로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선의 열기도 오늘 본선 못지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음성공양을 통해 스스로 신심을 돈우고 이웃에 불법을 전하는 여러분의 정성을 한번 더 치하합니다. 최근에 각 사찰 합창단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선에서도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불교합창페스티벌은 원로불교음악인들과 음악회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 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각별한 애정으로 어렵게 활동해 오신 원로음악인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우리 찬불가는 대중 전반의 관심보다는 사찰합창단과 몇몇 뜻있는 불교음악인들의 애정으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음악인들의 원력이 담긴 찬불가는 포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찬불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널리 불려졌으면 합니다.

특히 “2009불교합창페스티벌”은 합창단만이 아니라 작곡·작사가, 연주자, 성악가 등 불교음악인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이기에 불교음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합창단과 원로음악인들을 위한 연합합창에 참여하신 합창단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를 비롯한 관계자와 불교음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불기 2553(2009)년 11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